

주말 교회학교의 대안, 어린이기독교세계관학교

유경상 (CTC 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 대표)



예방교육으로서의 어린이기독교세계관학교

청소년기가 질풍노도의 시기라면 초등학교는 태풍 전야와 같은 고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에 비해 초등학교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부모에게 협조적이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비해 큰 문제없이 초등시절을 보낸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갑작스런 태풍이 휘몰아친 것처럼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에 빠져 힘들어 한다. 또한 이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 하는 부모들을 종종 보게 된다.

이것은 태풍이 오기 전에 만반의 대비를 하듯이 청소년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초등시절을 잘 준비해야 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교육의 현실은, 태풍을 미리 예방하기보다 태풍이 왔을 때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거나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 재빨리 복구하는 것에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다시 말해 예방교육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더 일반적이다.

이는 청소년기의 교육이 덜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바른 관점과 가치관을 제시하는 기독교세계관교육은 정체성과 가치관의 문제로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시급하다 (CTC는 청소년을 위한 생각캠프(2박3일)와 청소년기 기독교세계관학교(12주 과정)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일찍 아이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변화를 위한 보다 더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으며 태풍 속에 있는 청소년기를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CTC 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주말교회학교를 위한 어린이기독교세계관학교'는 예방차원에서의 기독교세계관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예방교육이라 함은 당장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이기보다,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질병을 위해 미리 예방주사를 맞듯이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생의 모든 단계가 다 중요한 시기이지만 특히 어린이에게 기독교세계관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씨앗을 심게 될 때 그것이 그들의 세계관이 되어 그들의 행동과 인생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춘기는 물론 성인기를 위한 기독교세계관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될 것이다.

CTC는 어린이를 위한 기독교세계관프로그램들(3년 6학기)을 준비해 놓고 있으며, 현재 거룩한빛 광성교



회(담임 정성진)와 평내교회(담임 권성호)에서 주말교회학교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세계관학교를 운영 중에 있다. 앞으로 어린이세계관학교가 주말교회학교 뿐만 아니라 교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되길 소망하며 주말교회학교에 사명과 가치를 둔 교회들에 주말교회어린이세계관학교 프로그램을 보급할 예정이다.

CTC 교육목적

어린이기독교세계관학교는 어린이들을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준비시켜 하나님 영광, 이웃 사랑, 세상 돌봄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돕는다.

기독교세계관교육은 교회교육의 새로운 트렌드나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기독교세계관교육은 기존의 교회교육을 비판하거나 전혀 다른 차원의 교육을 추구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예배를 강조하고, 말씀과 기도 중심의 제자훈련에 힘쓰는 교회교육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고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훈련을 통해 견고한 신앙을 가지게 될 때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름 아닌 기독교세계관교육의 목적이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세계관교육은 기존의 교회교육과 별개의 교육이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교회교육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세계관교육은 주일보다 토요일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당하다. 주일예배와 공공공부 중심의 제자훈련이 알차게 진행되는 기반 위에 기독교세계관교육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일 설교와 성경공부의 주제와 내용이 어린이세계관학교 교육내용과 통합된다면 더 효과적이고 알찬 교회교육이 될 것이다.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자가 되도록 하는 교회교육의 기반 위에 세상 속에서 창조본연의 목적인 하나님 영광, 이웃 사랑, 세상 돌봄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 서는 어린이들로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세계관교육의 목적이다.

CTC가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한

6가지 기독교세계관 프로그램들

CTC는 그동안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기독교세계관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돕는 어린이기독교세계관 프로그램과 이것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적용에 초점을 맞춘 5가지 주제별 기독교세계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다. 첫 번째 어린이기독교세계관 프로그램을 도서출판 CUP에서 곧 출간할 예정이며, 순차적으로 다른 프로그램들도 교재로 출간하여 교회와 기독교학교와 홈스쿨러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6가지 프로그램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으며 각각 12주 동안 또는 한 학기 동안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1.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기독교세계관)

기독교세계관의 핵심 원리인 창조, 타락, 구속의 핵심 내용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소개하고 삶의 주제인 친구, 공부, 아빠에 대해 기독교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코칭한다. 이를 통해 기독교적 사고 훈련을 물론 하나님 영광, 이웃 사랑, 세상 돌봄의 창조목적에 기초한 삶의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2.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기(성품 & 라이프)

성품을 기독교세계관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코칭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 이웃 사랑, 세상 돌봄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성품을 갖추고 성품이 반영된 생활습관(예 : 경청, 순종, 감사, 배려)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3. 미디어 시대, 예수님의 제자되기(미디어 & 대중문화)

그리스도인답게 미디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단절, 절





제, 분별, 창조라는 네 가지 미디어 생활원칙을 소개하고 실천하도록 코칭한다. 특히 TV, 게임, 연예인, 대중가요, 영화를 기독교세계관으로 볼 수 있도록 훈련하고, 사진, UCC 제작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꾸기(꿈 & 신앙인물)

꿈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소개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도록 코칭한다. 특히 다양한 창조영역에서 기독교세계관으로 살아간 인물들(예 : 조지 워싱턴 카버, 요한 세바스천 바흐, 요하네스 케플러, 윌리엄 캐리, 장기려, 윌리엄 월버포스, 유일한, 안창호)을 소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꾸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기(공부 & 변증)

공부할 주제와 내용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거나 비판할 수 있도록 코칭한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물 중 하나인 나무를 기독교세계관으로 바라봄으로써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뜻, 죄의 영향력,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아본다. 또한 그리스 신화와 진화론을 기독교세계관으로 공부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다른 세계관과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돕는다.

6.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살기(리더십)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도록 코칭한다. 특히 시간, 돈, 재능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돕는다.

부모교사가 주도하는 주말교회어린이세계관학교

기독교세계관교육의 목적은 생각을 훈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세계관교육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교사는

부모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탁월한 목회자나 교사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까지, 특히 가정에서의 모습까지 지켜보거나 훈련시킬 수는 없다. 어린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누구보다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부모이다. 따라서 좋은 영향이든지 나쁜 영향이든지 이미 부모들은 아이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시절의 어린이들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도록 돕는 기독교세계관교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명과 가치에 공감하는 헌신된 부모 교사들이 필요하다. 또한 의욕과 열정만이 아닌 준비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 앞서 부모들을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모가 변해야 아이들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가 먼저 기독교세계관을 정립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자녀들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린이들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데 부모들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



〈부모들을 위한 CTC 기독교세계관교육 프로그램들〉

부모들을 위한 특강들(각 2hr)	부모생각코칭 세미나 (8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독교세계관을 가진 자녀로 키우기 • 포스트모던 시대에 자녀 키우기 • 신앙과 공부, 두 마리 토끼인가? • 세계관, 성품, 그리고 인생 • 기독교세계관으로 영화보고 대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강 자녀의 생각을 읽는 코칭기술 • 2강 자녀의 문제해결을 돕는 생각코칭 • 3강 자녀에게 기독교세계관 심어주기 • 4강 예수님처럼 생각하도록 돕는 크리스천 생각코칭
부모세계관학교(12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강 왜 생각하는 아이로 키워야 하나? • 2강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 3강 세상의 생각 1 - 모더니즘 • 4강 세상의 생각 2 - 포스트모더니즘 • 5강 세상의 생각 3 - 뉴에이지 • 6강 세상의 생각 4 - 한국인의 세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강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기 • 8강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기 • 9강 미디어 시대 속에 예수님의 제자되기 • 10강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꾸기 • 11강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기 • 12강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살기

교회마다 주말교회어린이세계관학교가 운영되기를...

CTC는 2015년까지 300개 이상의 교회에서 어린이세계관학교가 운영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준비된 부모가 주도하는 주말교회어린이세계관학교가 잘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헌신뿐만 아니라 교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양육해야 할 사명이 있고, 교회는 다음세대를 하나님나라의 일꾼으로 준비시킬 사명이 있다. 따라서 어린이세계관학교는 교육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부모들뿐 아니라 담임 목회자를 비롯한 목회자들과 전체 성도들이 이 교육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며, 기도와 물질로 후원이 이루어질 때 더 활성화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주말교회어린이세계관학교는 부모의 적극적인 주도과 교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이 가능하다.

끝으로 주말교회어린이세계관학교가 교회마다 정착하고 활성화되길 소망한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제자(Thinking Disciples)와 21세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준비되어가길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를 위해 CTC는 앞으로도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세계관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사양성이라는 사명을 감당해 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세계관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명감을 가진 많은 동역자들의 관심과 기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세대를 세우는 귀한 동역의 만남이 더욱 풍성해지길 소망한다.

2013년 CTC 여름방학 프로그램 일정

1. 기독교세계관교육지도자 프랙티스 과정 (6월 24-26일, 송도 뉴욕주립대)

- 내용 : 어린이세계관학교 운영 가이드, 교재 및 ppt 자료 제공(1학기 분량)

2. 기독교세계관교육지도자 코어 과정 (8월 19-21일, 장소 미정)

- 내용 : 기독교세계관과 교육, 타세계관과 대중문화, 기독교세계관의 적용(성품, 미디어, 꿈, 공부, 리더십)

3. 청소년을 위한 생각캠프(여름방학 중)

- 여름수련회로 기독교세계관교육을 하기를 원하는 교회나 단체를 위해 청소년생각캠프를 직접 운영해 드립니다.

2013년 CTC 여름방학 프로그램 문의
Tel. 010-2792-5691 (안성희 팀장)



유경상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산하 청소년세계관교육기관인 크리스천생각센터(CHRISTIAN THINKING CENTER) 대표로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 기독교세계관 교육프로그램과 교재를 제공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VIEW(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전공했고,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일산에 있는 센터에서 어린이·청소년 세계관아카데미를, 거룩한빛강성교회에서 어린이세계관학교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세아연합신학교에서 기독교세계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